

남성혐오표현의 유형과 사용 양상*

박 대 아**

국문 초록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남성혐오표현, 즉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위마드(Womad)’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남성혐오표현을 조사하였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 그중에서도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중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도 자주 관찰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며, 남성혐오표현에는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다. 남성혐오라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유형·형태·기원의 남성혐오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내에서 큰 제약 없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

* 이 논문은 2018년 8월 20일~21일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열린 우리어문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 토론을 맡아 좋은 의견을 주신 하영우 선생님과 논문을 심사해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 목포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초빙교수

향이 있다. 남성 지시형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사용 문맥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남성혐오표현의 두 유형은 남성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주제어: 남성혐오, 여성혐오, 혐오표현, 남성혐오표현, 여성혐오표현, 워마드

1. 서론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남성혐오표현의 종류를 확인하고, 혐오의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남성혐오표현들이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을 대표적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성혐오표현이 지닌 구체적 의미와 특징을 확인하고자 한다.

어느 사회에서나 차별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난제다. 이중 여성에 대한 성차별은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성차별의 현실은 성차별적 언어 표현 또는 성차별어라는 존재로 우리의 언어 현실에 반영되어 왔고, 성차별어는 다시 성차별의 사회구조를 강화하고 지속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차별에 대한 관심과 반성은 그것의 반영이자 수단인 성차별어에 대한 언어적 관심과 반성으로 이어졌다. 이춘아·김이선(1996)은 말과 글에 나타난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말과 글로 나누어 조사하여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험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화하고 성차별적 언어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 조사보고서이다. 민현식(1997)에서는

채록과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차별 표현을 조사하여 각각 유형화하였다. 조태린(2006) 역시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에서의 차별적 언어 표현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양성 불평등과 관련된 표현 유형을 정리한 조사보고서이다. 안상수 외 4인(2007)에서는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을 유형화한 후 유형별 사례를 통계화하고 실제 사례를 제시하였는데, 이를 통해 ‘성별의 고정관념적 속성을 강조하는 언어 표현’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정복(2007)은 국어사전에 보이는 성차별 표현을 올림말, 뜻풀이, 용례로 나누어 조사한 후 성차별 표현의 내용을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다양한 유형화도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성차별어에 대한 일차적 관심이 사례 조사와 유형화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적 표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유형화가 진행되었지만, 다른 여러 기준이 혼재된 단층적인 유형화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¹⁾

최근에는 성적 차별을 넘어선 성적 혐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했

1) 이춘아·김이선(1996)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공간을 규정하는 표현, 여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공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 여성을 하찮은 존재로 비하하고 무시하는 표현’으로 유형화했으며, 민현식(1997)에서는 여성 차별 표현을 ‘가사 책임 강조, 외부 활동 제한, 결혼 지상주의화, 남성 지배 정당화, 여성 무용화, 여성 무능화, 여성 속성, 여성 품행, 여성 침묵 언행, 여성 용모, 여성 소유물화, 여성 시중 강요’ 등으로 유형화했으며, 남성 차별 표현을 ‘대장부 요구, 능력 요구, 남성 역할 고정화, 남성 속성, 남성 언행, 남성 혐오 용모’ 등으로 유형화했다. 조태린(2006)은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 등을 양성 불평등과 관련된 표현 유형으로 정리하였고, 안상수 외 4인(2007)은 성차별적 표현을 ‘성별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관념적 속성 강조, 선정적 표현, 특정 성 비하’로, 이정복(2007)은 성차별 표현의 내용을 ‘여성을 배제하기, 아내를 남편에 종속시키기,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등의 다섯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다. 여성에 대한 성차별에서 진화한 여성혐오의 정서는 2000년대 중반 인터넷을 중심으로 유행한 ‘개똥녀’, ‘김치녀’, ‘된장녀’ 등의 여성혐오표현의 등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었다. 이후 이른바 ‘남초 사이트’라 불리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일베’와 같은 보수 성향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성혐오의 정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성혐오표현 또한 확대·재생산되었다. 확대·재생산된 여성혐오표현은 여성혐오의 정서를 선전하고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인터넷상에서 무차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성혐오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의 남성혐오도 표면화되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남성혐오의 정서를 공유하기 위해 여성혐오표현에 대응하는 남성혐오표현을 의도적으로 개발하였고, 남성혐오의 정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이들 표현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 표현들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트위터와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최근에는 남성혐오표현이 인터넷 공간을 벗어나 시위 현장에까지 진출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과 관심이 증폭되었으며, 남성혐오표현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언어적 연구의 발단은 이정복(2010)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시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녀’ 형태의 여성 비하적 지시 표현의 유형을 ‘지시대상, 생명력, 남성 대응형의 존재, 비하의 초점’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들 비하 표현의 구체적인 쓰임과 의미를 파악하였다. 박동근(2012)는 [X-남], [X-녀]류의 인터넷 어휘의 종류, 구성, 유형 등을 살폈는데, 의미 속성에 따라 ‘능력, 외모, 행위(발언), 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행위(발언)와 관련된 부정적 어휘에 [X-남]에 비해 [X-녀]가 월등히 많은 점을 양성 불평등의 사례로 지적하였다.

성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에 비해 혐오표현에 대한 언어적 연

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성혐오표현에 대한 언어적 조사와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연구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극단적 양상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연구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현상으로서의 여성혐오와 남성혐오를 이해하는 언어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남성혐오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이나 대상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반영된 언어적 표현’을 말한다.²⁾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고 있는 남성혐오표현을 확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워마드 사이트(<https://womad.life>)³⁾ 공지사항 게시판의 ‘워마드 단어사전’과 위키독

2) 김태우(2013:4)에서는 혐오표현을 하는 자와 접하는 자를 구분하여 논의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혐오표현을 혐오감을 가지고 하는 표현과 접하는 자가 혐오감을 느끼도록 하는 표현으로 구분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정의함에 있어 의도와 결과를 구분하여 고려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조태린(2011:397-399)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말하는 이의 의도와 듣는 이의 인식에 따라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본 논의에서는 결과로서의 혐오표현이 아닌 의도로서의 혐오표현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결과로서의 혐오표현은 수용자의 인식 정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계기로 ‘디시인사이드’(<http://gall.dcinside.com>)에 ‘메르스 갤러리’가 만들어졌다. 이 갤러리에서 여성혐오 정서와 혐오표현들이 무차별적으로 생산·유포되었고 이에 반발한 여성 사용자들은 남성혐오의 정서와 표현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 전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성혐오의 갈등이 극에 달하자 게시판 사용에 제재 조치가 가해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메르스 갤러리’의 여성 사용자들은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에서 이름을 딴 ‘메갈리아’ 사이트를 만들어 이주하였다. 이후 ‘메갈리아’의 사용자들은 내부 갈등 등의 문제로 ‘워마드’, ‘여성시대’ 등의 커뮤니티로 갈라져 이주하게 되었고 ‘메갈리아’는 폐쇄되었다. ‘워마드(Womad)’는 ‘Woman’과 ‘nomad’에서 따온 말

(<http://www.wikidok.net>) 사이트 내의 위마드 위키(<http://ko.womad.wikidok.net/Wiki>)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남성혐오표현의 구체적인 사용 양상과 의미, 빈도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개월 동안 위마드(Womad)의 월간베스트로 선정된 108개의 게시글을 조사하였다. 여기에 관련 내용을 검색하면서 조사된 남성혐오 표현들도 추가하여 남성혐오표현의 목록을 작성하였다.

2. 남성혐오표현의 유형

여기에서는 2018년 현재 인터넷에서 관찰되는 남성혐오표현을 목록화하고 유형을 분류하여 제시한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은 비하적·혐오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해 남성을 지시함으로써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적 표현이다. 남성을 지시할 때 혐오적 이미지를 가진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남성혐오의 의도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비하적·혐오적 의미를 지닌 표현에 남성을 대입함으로써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언어적 표현이다. 혐오적 이미지를 가진 표현 전체 혹은 일부를 남성으로 대체하여 남성혐오를 실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남충’이라는 남성혐오표현은 ‘(한국) 남자’와 ‘충(蟲)’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표현으로,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이는 ‘한국 남성 전체’를 비하하는 표현인데, 지시 대상인 ‘남성’을 ‘벌레’라는 부

로 급진적 페미니즘(radical feminism)을 지향하는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다.

정적·혐오적 의미를 지닌 ‘남충’으로 지시하면서 남성혐오의 의미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에 ‘아들치기’라는 표현은 기존의 자위행위를 표현하는 속어인 ‘딸치기’를 대체하여 사용되는 남성혐오표현이다. 부정적이고 혐오스러운 행위로 인식되는 자위행위를 의미하는 ‘딸치기’를 ‘딸(女)+치기’의 결합으로 분석한 후, ‘딸(女)-여성’ 대신 ‘아들(子)-남성’을 대입하여 ‘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다.

2.1.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은 ‘지시 대상’에 따라 다시 세분화할 수 있는데, ‘남성 자체’, ‘남성 성기’, ‘남성 특성’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은 ‘남성 일반’, ‘특정 인물’, ‘연령에 따른 남성’, ‘관계에 따른 남성’, ‘특정 의미를 지닌 남성’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으로 세분된다.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남성혐오표현들은 한국 남성을 일반적으로 지시하는 데 사용되는 혐오표현으로 ‘한남(충), 남충, 냄저, 자매이, 자집애, 씹치(남), 창남, 좆놈’ 등이 표현이 여기에 속한다. 특정 인물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에는 ‘홍대누드남, 홍대노출남, 박카스남, 애호박남, 연탄남’ 등이 있는데, 이들 표현들은 특정 인물만을 일대일로 지시하며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한다.⁴⁾

연령에 따른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들은 ‘쇼린이-아재충-틀딱(충)’의 의미적 계열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폐지(廢止)’ 혹은 ‘폐기(廢棄)’

4) 최근 발생한 ‘홍익대 남성 누드모델 몰카 사건’을 기반으로 ‘홍대누드남’, ‘홍대노출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박카스남’도 ‘일베’ 사이트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애호박남’은 ‘유아인의 SNS 설전’, ‘연탄남’은 ‘종현의 죽음’에서 비롯되어 당사자들을 지시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의 의미를 내포하는 ‘상페(남)’, ‘폐저씨’ 등의 표현을 포함한다.⁵⁾ 관계에 따른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에는 주로 가족 관계와 연애 관계에서 비롯된 ‘넌편(충), 부랄더, 읍충, 오랩(충), 남동충, 애비(충), 앵(충), 할애비(충), 할앵(충), 할배(충), 전남충, 구남충’ 등의 혐오표현들이 포함된다.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특정 의미를 지닌 남성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다. 여기에 속하는 ‘○○남’ 유형의 혐오표현 대부분은 남성의 어떤 속성을 일반화하여 남성을 지시하게 된 것이지 특정한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⁶⁾ 이 유형의 혐오표현이 양적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남성에게 더 다양한 부정적·혐오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욕구와 전략 때문에 발생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성 성기를 지시하는 혐오표현으로는 남성 성기를 직접 지시하는 비속어인 ‘자지’와 ‘좃’, ‘부랄’이 사용된다. 또한 한국 남성 성기의 크기나 색깔을 통해 남성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혐오표현도 다수 존재한다. ‘6.9cm, 꼬춘쿠기, 멸치좃, 버튼좃, 소추, 실좃, 짹추, 부랄베로스, 삼부랄, 좃밥’ 등은 한국 남성 성기의 크기를, ‘갈좃’과 ‘짜장부랄’은 한국 남성 성기의 색깔을 강조한 혐오표현이다. 남성 성기를 지시하는 혐오표현은 대체로 성기뿐 아니라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5) ‘쇼린이’는 ‘남자 어린이’를 성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으로 ‘쇼타로’와 ‘어린이’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표현인데, 이는 여성혐오표현인 ‘로린이’에 대응되는 표현이다.

6) 이정복(2010:221)과 박동근(2012:45-46)에 제시된 ‘○○녀’ 유형의 여성혐오표현들을 살펴보면 ‘○○남’ 유형의 표현보다 양적으로도 월등히 많으며, 특정한 사건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번에 조사된 ‘○○남’ 유형의 남성혐오표현들은 양적으로는 많지만, 특정 사건을 기반으로 탄생한 것들은 ‘특정 인물’을 지시한 혐오표현인 ‘홍대누드남, 홍대노출남, 박가스남, 애호박남, 연탄남’ 정도였다.

[표 1]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

	세부 유형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
남성 자체 지시	남성 일반	한남(충), 남충, 냄저, 자매이, 자집애, 씹지(남), 창남, 좇놈
	특정 인물	홍대누드남, 홍대노출남, 박카스남, 애호박남, 연탄남
	연령	쇼린이, 아재충, 툇딱(충), 상폐(남), 폐저씨
	관계	냄편(충), 부랄더, 읍충, 오랩(충), 남동충, 애비(충), 엠(충), 할애비(충), 할앵(충), 할배(충), 전남충, 구남충
	특정 의미 남성	시계남, 싸튀남, 강간남, 콩치남, 오메가남, 빠가남, 번탈남, 오물남, 누드남, 노출남, 도태남, 싸튀충, 강간충, 200충, 똥꼬충[돈고충], 밥 쥐충, 오피충, 함흥자지, 임신수, 자라니, 좇뽕, 자슬아치, 핑거프린스, 개복치, 멸치, 프로번탈러, 군무새, 군캉이, 똥나, 성괴, 옷창[챙], 김아재, 고기방패[육방패], 관갖
남성 성기 지시	직접 지시	자지, 좇, 부랄
	크기 지시	6,9cm, 꼬춘쿠기, 멸치좇, 버튼좇, 소추, 실좇, 째추, 부랄베로스, 삼 부랄, 좇밥
	색깔 지시	갈좇, 짜장부랄
남성 특성 지시	행위 지시	3초찍, 외랄랄라, 핀셋자위, 웅앵웅, 자적자, 김치페이, 한남또
	외모 지시	안경버무리
	태도 지시	강약약강

남성 특성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은 남성의 ‘행위’, ‘외모’, ‘태도’를 가리키는 혐오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남성의 행위를 지시하는 혐오표현에는 한국 남성의 성행위를 조롱하는 ‘3초찍, 외랄랄라, 핀셋자위’ 등의 표현과 한국 남성의 주장이나 발화 행위를 비하하는 ‘웅앵웅’, ‘남성끼리 공격하는 행위’를 조롱하는 ‘자적자’, ‘한국 남성의 더치페이’를 비하하는 ‘김치페이’ 등이 있다. 남성의 외모와 남성의 태도를 비하하는 혐오표현으로는 ‘안경버무리’와 ‘강약약강’이 각각 조사되었다. ‘안경버무리’는 ‘안경을 쓰면 모두 똑같이 생긴’ 혹은 ‘안경을 벗으면 다 똑같이 못생긴’ 한국 남자들의 외모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강약약강’은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한국 남성의 태도를 비하하는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분류한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2.2.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남성 자체’를 대입한 혐오표현과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 남성과 관련된 ‘남성 발화’를 대입한 혐오표현으로 구분된다.

남성 자체를 대입한 혐오표현은 ‘아들치기, 앵창, 한남민국’처럼 남성 일반을 대입한 혐오표현과 ‘재기하다, 기안내’처럼 특정 인물을 대입한 혐오표현으로 다시 구분된다. 이들은 부정적이거나 혐오적인 의미를 지닌 ‘딸치기’, ‘앵창(앵창, 앵창)’이라는 표현에 여성을 대표하는 형태 대신 남성을 대표하는 형태를 대입해 만들어진 표현이다. ‘한남민국’도 남성 중심 사회인 ‘대한민국’의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한국 남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한남’을 결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부정적·혐오적 이미지를 지닌 ‘자살하다, 투신하다’라는 표현을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재기하다’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난한 내(냄새)’라는 표현 역시 특정 만화가의 활동명으로 대체하여 ‘기안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에서는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이 양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은 비하 혹은 조롱의 대상과 결합되는 형태에 따라 ‘자지’, ‘좇’, ‘부랄’을 대입한 것으로 세분할 수 있다. ‘자트릭스’는 ‘여성을 착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남성 위주의 사회 구조’를 의미하는데 남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인 ‘자지’와 ‘메트릭스’를 결합해 사용하는 혐오표현이다. ‘좇국’은 남성 성기의 비속어인 ‘좇’과 ‘한국’을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며, ‘부랄발광’은 ‘남자가 발광하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지랄발광’과 ‘부랄(불알)’을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다.

남성의 특정 발화를 대입하여 남성혐오표현을 만들기도 하는데, ‘앵나’와 ‘하용가’가 대표적이다. ‘앵나’는 ‘매우’ 정도를 의미하는 강조어의

기능을 하며 ‘하용가’는 ‘하이 용돈 만남 가능?’의 줄임말로 특정 채팅 어플리케이션에서 한 남성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던 말을 희화화하여 게시글의 첫머리에 ‘하이’라는 인사말 대신 사용하는 표현이다. ‘바용가’는 ‘하용가’와 ‘바이’의 결합으로, 게시글의 끝머리에 ‘바이’라는 인사말 대신 사용하는 표현이다. [표 2]는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유형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2]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세부 유형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남성 자체 대입	남성 일반	아들치기, 앵창, 한남민국
	특정 인물	재기하다, 기안내
남성 성기 대입	‘자지’ 대입	자트릭스, 자이루, 자지랏, 자릉내, 흥자, 자들자들, 자지합리화, 자지입맛
	‘좇’ 대입	좇국, 좇국어, 좇국인, 좇한민국, 좇인교회, 좇반도, 좇가, 좇집, 가좇, 좇창나다, 좇팔, 좇레벌떡, 좇스플레인, 좇무위키, 이중좇대, 흑좇나, 좇빨리
	‘부랄’ 대입	부랄자, 부랄팔랑, 부랄발광, 부랄 떨어, 봉알봉알
	기타	소추소심, 후팔
남성 발화 대입		앵나, 하용가, 바용가

3.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여기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남성혐오 텍스트에서 남성혐오표현이 사용되는 빈도를 분석하고 고빈도로 사용되는 남성혐오표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또한 남성혐오표현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사례 중심으로 확인하면서 개별적 남성혐오표현이 갖는 의미를 함께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고 남성혐오표현의 특징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3.1.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빈도

인터넷에서 남성혐오표현이 어떤 양상으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빈도를 우선 조사하였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빈도는 위마드 사이트의 게시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조사 대상은 2018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6개월간 월간베스트로 선정된 108개의 게시글로 한정하였으며, 이들 게시글에 등장하는 남성혐오표현을 조사하고 빈도를 기록하였다.

이 기간의 월간베스트 게시물에서 확인된 남성혐오표현의 종류는 총 90개였으며, 총 579회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시물에 길이와 내용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하나의 게시물에 약 5.4개 정도의 남성혐오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90개의 남성혐오표현이 모두 유사한 빈도로 사용된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용 빈도 측면에서 매우 큰 편차를 보였다.

전체 게시물을 통틀어 단 1회만 사용된 남성혐오표현이 34개(37.8%)였으며, 2회 사용된 표현은 9개, 3회 사용된 표현은 8개였다. 총 90개 중 10회 미만의 출현 빈도를 보인 남성혐오표현은 75개(83.3%)로 조사되어, 사용된 남성혐오표현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사용 빈도는 이들 75개를 제외한 15개의 특정 혐오표현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은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표 3]은 조사 대상 게시물에서 10회 이상 등장한 고빈도 남성혐오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10회 이상 고빈도로 등장한 남성혐오표현은 모두 15개로 제한적이지만 출현 빈도 측면에서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 대상 게시물에서 가장 자주 등장한 남성혐오표현은 ‘한남’이다. 이는 ‘한국 남자’의 줄임말로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한남’의 출현 빈도는 독자적으로도 가장 높지만, 유사 형태와 의미

[표3] 고빈도 남성혐오표현

순위	표현	빈도(회)	비율(%)
1	한남	86	14.6
2	좇국	38	6.4
3	냄저	34	5.8
4	자매이	30	5.1
5	한남충	28	4.7
	앵나	28	4.7
7	좇놈	25	4.2
8	소추	19	3.2
9	재기하다	18	3.1
10	창남	16	2.7
	좇창나다	16	2.7
12	좇팔	14	2.4
13	자트릭스	12	2.0
14	웅앵웅	11	1.9
15	좇뺨	10	1.7
총계		385	65.2

를 가진 ‘한남충’의 출현 빈도까지 고려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출현 빈도를 보인다 할 수 있다. 또한 앞선 유형 분류에서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으로 분류된 ‘냄저, 자매이, 창남, 좇놈’ 등이 고빈도 남성혐오표현의 목록에 포함되었다. 즉,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 그리고 그중에서도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 고빈도 목록에 다수 포함된 것이다.

이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목적으로 하는 게시글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이다. 커뮤니티의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은 게시글이 월간베스트로 선정된다. 남성혐오를 표방하는 인터

넷 커뮤니티에서 구성원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혐오 대상인 ‘남성’을 자주 언급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남성’을 지시하는 표현이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불특정한 한국 남성 전체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다음으로 자주 관찰되는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은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중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이다.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이 빈번히 사용되는 이유는 성기가 갖는 특별한 상징적 의미 때문일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성기는 성기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남성 자체를 의미하거나 남성성을 상징한다. ‘좇국’과 ‘자트릭스’의 빈번한 출현은 한국 사회에 대한 커뮤니티의 시선을 보여준다. ‘한국’과 ‘좇’을 결합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며, ‘메

트릭스’와 ‘자지’를 결합하여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를 혐오의 대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좃창나다’는 ‘완전히 망하다, 엉망이 되다’ 정도의 의미를 지닌 ‘씹창나다’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좃창나다, 좃창내다’ 형태로 사용되어 남성과 관련된 극단적 행위나 결과를 표현하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좃팔’은 ‘씨팔’이라는 욕설의 대응어로, 유사한 ‘후팔’과 함께 남성에 대한 공격성과 분노를 표현하는 간투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남성의 특정 발화를 대입한 혐오표현인 ‘앵나’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이 표현이 담당하는 수식 기능 때문이다. 또한 특정 인물을 대입한 혐오표현인 ‘재기하다’도 자주 사용된다. 이 표현의 의미를 고려해 보면 특정 인물의 죽음에 대한 조롱과 남성 일반에 대한 극단적 주장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남성 행위를 지시하는 혐오표현인 ‘옹앵옹’의 빈번한 사용은 어떤 사안에 대한 남성의 주장이나 발화에 대한 조롱과 무시의 심리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3.2.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여기에서는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의 남성혐오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제시된 유형별로 선택된 대표적인 남성혐오표현의 실제 사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혐오표현의 의미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남성혐오표현의 명확한 용법과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2.1.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① 냄저

‘냄저’는 ‘남자’의 의도적 변이형이다. ‘남자’는 중립적인 표현인데 반해 ‘냄저’는 ‘남자’에 대한 비하와 혐오의 의미가 담긴 표현이다. ‘위마드 단어사전’에서는 ‘남자→냄저’의 변형 이유를 ‘남자’ 형태에 사용된 “양성모음이 긍정적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음성모음으로 바꾼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⁷⁾ 그러나 이 설명은 두 번째 음절의 ‘자→저’의 변형에 대해서만 유효한 것이지 첫 번째 음절의 ‘남→냄’의 변형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 양성모음이 밝은 어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과 ‘냄’에 사용된 ‘ㄴ’ 모음이나 ‘ㅁ’ 모음 모두 양성모음에 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상 가능한 음성모음 형인 ‘님저, 념저, 늠저, 뉘저’ 등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냄저’에서 변형된 ‘냄저’ 형태는 매우 고빈도로 등장한다.⁸⁾

- (1) 가. 여성은 지금까지 미개한 냄저에게 권리와 자유를 뺏겨왔노
나. 보지들이 성적 아무리 잘 받아봤자 돈 많이 버는 상위과는 땡
청한 냄저들이 다 널름 채가는게 현실이다이기 좇팔

(1가)에서 ‘냄저’는 단순히 ‘여성’에 대립되는 객관적 의미로서의 ‘남성’이 아닌 여성의 권리와 자유를 빼앗은 ‘미개한’ 존재로서의 ‘남성’을 지시한다. (1나)는 남성 위주의 의과대학의 현실에 대해 토로하는 내용이다. 여성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인기 있는 상위과를 남성이 독식한

7) 일부에서는 ‘냄새가 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냄새 오저’라는 표현의 줄임말로 설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냄저’라는 표현이 남성혐오표현이 아님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논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유사한 예로 ‘자이루’를 ‘자지+하이루’의 줄임말이 아닌 ‘자매님+하이루’의 줄임말이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8) 2018년 8월 10일 기준으로 위마드 사이트의 내부 검색 기능을 활용하였을 때, ‘냄저’ 형태는 2,500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늠저’ 형태는 3회, ‘뉘저’ 형태는 1회 사용되었다.

다는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도 ‘냄저’는 ‘남자’를 ‘맹청한(명청한)’ 존재로 비하하는 표현이다. 남자를 미개하거나 멍청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부정적인 속성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기 위해 ‘남자’라는 형태를 ‘냄저’ 형태로 변형함으로써 부정과 혐오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② 툇딱

‘툇딱’은 ‘툇니 툇딱’의 줄임말로 ‘툇니를 툇딱거릴 정도로 나이 든 남성’을 의미하는 혐오표현으로, 노년층 남성을 비하하는 데 사용된다. 때로는 나이와 상관없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때는 ‘30대 툇딱’처럼 특정 연령층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2) 가. 멀리서부터 자맏이들이 나를 슬슬 피하노
젊은놈이든 툇딱이든
그렇노.

나. 하지만 30대 이상 툇딱남들은 어려서는 애미 커서는 아내를 착취
해오고1020한남들은 지금도 열심히 엄마 등골 뿔아먹고 있노
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같은직장 툇딱놈을 엘베에서 만났노 / 머머
리 똥배나오고 눈깔 흰자 누렇고 검은자는 탁하고 / 피부는 술
돈을 넘어 시커멓고 보기만해도 냄새나게 생긴 60대 툇딱이...

(2가)는 비하의 대상 측면에서 ‘젊은놈’과 대비되는 ‘툇딱’의 사용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2나)는 ‘툇딱’이라는 표현이 나이와 상관없이 노년층 이외의 남성들에게도 비하의 의미로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다)는 ‘툇딱’에 담긴 나이 든 남성에게 대한 혐오의 의미를 폭넓게 묘사하고 있다. 나이 든 남성을 대머리, 똥배, 누렇게 변색된 흰자위, 탁한 눈동자, 검은 피부, 냄새 등의 특징을 가진 존재로 서술하고 있다.

한편, ‘틀딱’에 ‘충(蟲)’이 결합된 ‘틀딱충’도 의미적으로 큰 차이 없이 사용된다.⁹⁾

③ 읍충

‘읍충’은 ‘오빠’와 ‘충’이 결합된 혐오표현으로 여동생 입장에서 손위 남자 형제를 비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형태 변화가 없는 ‘오빠충’이라는 표현도 소수 발견되지만, 대체로 2음절 모음이 탈락된 축약형 ‘읍충’의 형태가 주로 사용된다. 가족 관계에서 비롯된 관련 표현으로 ‘남동충’이 있다.

- (3) 가. 읍충 인생 서~서히 망치는게 내 로망이고 버킷리스트 중 하나
다이기야
나. 내 생일 겸 애비 읍충 모두 재기해줬음 좋겠노
다. 읍충 남동충 읍충 칫솔 번기에 안 담귀본 넌 있냐

‘읍충’도 혐오표현인 만큼 혐오의 맥락에서만 사용된다. (3가)에서 ‘읍충’은 공격의 대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 결과인 ‘읍충’의 파멸이 화자의 인생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3나)에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읍충’이 ‘애비(아버지)’와 함께 죽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표현되어 있다. (3다)에서는 남성 가족 구성원인 ‘읍충’, ‘남동충’, ‘읍충’을 공격과 조롱의 대상으로 동일시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④ 임신수

9) ‘충(蟲)’은 일부 남성혐오표현에서는 잉여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이미 남성혐오표현으로서 의미와 기능을 획득한 ‘한남, 틀딱, 남편, 오래, 애비, 엠, 애비, 할애플, 할배’ 등의 혐오표현들은 선호되는 형태가 다를 뿐, ‘한남’과 ‘한남충’처럼 자유로운 상호 대체가 가능하고 의미적 정도 차이도 미세한 것으로 보인다.

‘임신수’는 지하철에 마련된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남성들을 비하하고 모욕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이다. 이 표현에는 ‘그 남자는 임신이 가능한 존재이므로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것’ 혹은 ‘그 남자는 임신한 존재이므로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¹⁰⁾ 배가 나온 남성을 비하할 때 ‘임신수’에 빗대어 표현하기도 한다.

- (4) 가. 내 바로 옆에 임신수 할배 썩은내 풍기길래 / 진상떨었노
나. 평범수에 태닝시키고 임신 7개월 임신수 배때지 / 장작시킨 놈
이었는데
다. 오늘자 임신수 구경하고 가라이기

(4가)에서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옆자리인 임신부 배려석에 앉아 있는 남성 노인에 대한 비하의 감정이 담겨 있다. (4나)에는 배 나온 남성의 외모를 비하하기 위해 ‘임신수’라는 표현이 선택되어 사용되었다. ‘임신수’라는 표현은 흔히 (4다)의 방식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임신부 배려석에 앉는 남성들의 사진을 찍어 게시할 때, 글의 제목이나 글의 시작 부분을 이러한 형태로 작성하여 게시하기 때문이다.

⑤ 6.9cm

‘6.9cm’는 한국 남성의 음경 크기에 관한 주장을 통해 한국 남성에 대한 조롱과 비하,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한국 남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데 주로 쓰이지만, 외모와 관련된 표현과 함께 언급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단순화하여 ‘6.9’ 또는 ‘육점구’의 형태로도 사용된다.

10) 임신수(妊娠受)는 원래 BL(Boys Love) 장르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BL(Boys Love) 장르는 남성 간 연애와 성관계를 다루는 장르인데, 등장인물들은 성역할에 따라 공(攻)과 수(受) 캐릭터로 구분된다. BL 장르에서 임신수는 임신이 가능한 것으로 설정된 수(受) 캐릭터를 지칭한다. 유사한 표현으로 ‘오메가남’이 있다.

- (5) 가. 진심 6.9cm 토 나오는 와క్క에 꽤오후 새끼랑 담임이랑 한참 싸
우 다가
나. 실상은 165cm에 6.9cm에다 야동중독 번식탈락남들뿐인데 ㄱ
ㄱㄱㄱㄱㄱㄱ
다. 공대로 유우명해서 여자보다 한남들이 696969배 많은 아주
한남충들이 득실대는 학교노.
라. 내가 머학 다니면서 자매이들한테 6당했던9 애기들 곧 하나하
나씩 풀거노.
마. 이미 졸업한지 좀 되었지만 머학 다니면서 66아 역시 세상은
넓고 한남 포라이들은 많구나99 라고 생각했노.

(5가)에서는 ‘와క్క(와꾸)’, ‘꽤오우(꽤오우)’ 등 외모를 폄하하는 표현
들과 함께 대상 남성의 외모와 성적 능력을 비하하는 의미로 ‘6.9cm’라
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5나)에서도 작은 키를 의미하는 수치와 ‘6.9cm’
라는 표현이 함께 제시되면서 한국 남성을 비하하고 있다.

한편, ‘6.9cm’라는 표현은 그 의미와 기능이 확대되어 일상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 남성혐오의 게시글에서는 불특정한 수치를 표현할 때, ‘69,
6969, 696969...’처럼 ‘69’라는 수치를 중복하여 사용한다. (5다)에서는
‘많음’을 표현하기 위해 ‘69’라는 수치를 겹쳐 사용한 것이다. 또한 문장
부호인 작은따옴표(“)와 큰따옴표(”)를 대신하여 ‘69’와 ‘6699’를 사용한
다. (5라)에서는 ‘당했던’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6당했던9’의 방식
으로 표현했으며, (5마)에서는 혼잣말을 인용하면서 ‘66아 역시 ... 많구나
99’의 방식으로 ‘69’를 사용했다. 이러한 ‘69’의 확장된 의미와 기능은 모
두 ‘6.9cm’라는 비하와 혐오의 의미에서 시작되어 일상화되었다.

⑥ 웅앵웅

‘웅앵웅’은 원래 한국영화의 음향에 대해 비판하는 트위터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이후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무의미한 감탄사 정도로 사용되다가 ‘헛소리’, ‘이러쿵저러쿵’, ‘어찌고저찌고’ 정도의 의미를 가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남성혐오의 문맥 속에서 ‘웅앵웅’이란 표현은 남성들의 발화 내용이나 발화 행위를 폄하하는 혐오의 표현으로 변화했다. ‘웅앵웅’은 남성의 발화 행위 자체를 비하하거나, 남성의 발화나 주장의 근거와 내용을 압축하여 무시하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하기 위한 표현으로 사용된다.

(6) 가. 웅앵웅은 종특이노 ㄱ

나. 여초 커뮤니티에서 관음자지가 여혐 사건 아닌데요 웅앵웅 거리길래 패줬더니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요 웅앵웅

다. 창조주가 뭐 좀만 어떻게 하면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66비정한 엄마 웅앵웅99하면서 그 작은 소추 미더덕을 발발발 떨지 않노?

(6가)에서 남성 혐오에 사용되는 ‘웅앵웅’의 의미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웅앵웅’을 남성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6나)는 ‘여혐 사건 아닌데요, 어찌고저찌고 말하기에’ 정도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세한 발화의 내용이 ‘웅앵웅’으로 대체되면서 발화자인 해당 남성의 주장과 설명들은 모두 무의미한 것으로 편집된다. (6다)에서도 ‘비정한 엄마’에 대한 남성들의 발화 내용과 근거들이 모두 ‘웅앵웅’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되어 무의미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3.2.2.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① 재기하다

‘재기하다’는 ‘자살하다’, ‘투신하다’의 의미를 대신하는 혐오표현이다. ‘재기하다’라는 남성혐오표현은 여성혐오와 관련된 특정인의 죽음을 배경으로 한다. 이는 특정인의 죽음을 소재로 ‘자살’과 ‘투신’이라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에 대한 극단적인 혐오의 의도가 담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7) 가. 니들 인생은 이걸로 역할을 다했으니 싸개싸개 재기하라이기야
 나. 역시 좃놈들은 뭐다?재기민기무현회찬해라 2giya
 다. 보지답게 건강은 잘 챙겨라이기 건강재기하면 아무 소용없노

(7가)는 ‘재기하다’라는 표현의 전형적인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 ‘재기하라’는 표현은 남성들에게 ‘자살’과 ‘투신’을 명령하고 권유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누군가의 죽음을 활용한 혐오의 방식은 확장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혐오의 표현은 애초에 선택된 인물을 대입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식을 선택한 다른 인물들까지도 혐오표현에 활용하게 되었다. (7나)는 ‘재기하다’와 관련된 혐오표현의 형식적 확장을 잘 보여준다.¹¹⁾

한편 ‘재기하다’는 의미적으로도 확장되어 ‘자살하다’의 의미 외에도 ‘없다’, ‘잃다’, ‘사라지다’, ‘나빠지다’ 등의 다양한 부정적 의미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7다)의 ‘건강재기하면’은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을 잃으면’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어이가 재기하노’, ‘기분 재기하노’, ‘디자인 센스 재기하고’, ‘정신력 재기하기 전에’, ‘시력 재기하는 줄’, ‘말머리 재기하고’, ‘서버 재기하면’, ‘효율성 더 재기하노’, ‘가성비 재기하니’ 등의 표현에서처럼 ‘재기하다’는 부정적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다.

11)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종현’, ‘주혁’, ‘직수’ 등도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② 기안내

‘기안내’는 ‘가난한 내(냄새)’ 혹은 ‘구질구질하게 사는 모습’을 의미하는 혐오표현이다. 이 표현 역시 특정 인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유명인의 가난한 생활 모습이 화제가 된 후, 남성이 보이는 가난한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 주로 ‘기안내 나다’의 형식으로 사용되면서 남성이나 남성과 관련된 것들의 질이 떨어짐을 표현한다.

(8) 가.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후빨 기안내나는 것들끼리 연락주고
받았을 생각하면 비위상한다 이기 재기재기고재기

나. 드디어 이 좆국땅을 벗어나노.. / 그동안 끼고다녔던 마스크,
기침약, 기안내나는 반찬, 식기 전부 버렸노 / 내 조국에서 새
로운 인생 살거노

다. 오늘은 6이청준 줄9을 배우는데 한남 작 역시 기안내 나더노.

(8가)는 중고거래에 대한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 여기에서 ‘기안내 나는 것들’은 중고거래를 하는 남성들을 가리킨다. (8나)에서는 해외로 이주하면서 한국에서 먹던 가난한 냄새 혹은 구질구질한 냄새가 나는 반찬을 버렸다는 내용이다. (8다)는 이청준의 <줄>이라는 작품을 ‘기안내’ 나는 것, 즉 질이 떨어지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③ 흉자

‘흉내’와 ‘자지’를 결합해 만든 두음절어로, ‘남성을 흉내 내는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 표현은 남성의 입장에서 사고하거나 행동하는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남성의 입장에 서거나 남성을 대변하는 여성들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혐오의 대상이 된다. 원래는 이러한 부류의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로 ‘명예자지’ 혹은 ‘명자’라

는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명예’라는 단어가 주는 긍정적인 느낌 때문에 ‘홍자’로 대체되었다.

(9) 가. 이미 홍자들은 알고 있노. 돼지새끼 만나려고 지는 업업하고
 땀냄새 돼지육수내 나는 뱀저랑 놀려고 향수에 업업 오지게 하
 고 오는 저를 보고 홍자라 하는걸.

나. 뱀저와 홍자들이 애 혼자 키우는 여성에게 얼마나 폭력적인지
 다들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노

(9가)에서는 남성들과 어울리면서 남성들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하는 여성들을 향해 ‘홍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비하하고 있다. (9나)에서는 남성들과 동일한 관점과 방식으로 여성을 대하는 여성들을 ‘홍자’로 표현하면서 남성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비하하고 있다. 이는 여성일지라도 남성에 대한 견해가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혐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좇국

남성혐오의 맥락 속에서 ‘한국’은 대체로 ‘좇국’이라는 형태로 표현된다. ‘좇국’은 남성 성기의 비속어이자 남성을 상징하는 비속어인 ‘좇’과 ‘한국’이 결합된 표현이다. 이때 ‘한(韓)’의 자리를 ‘좇’이 대신한다. 이 표현은 한국을 남성 성기에 빗대는 방식으로 한국사회의 남성 편향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좇국’에서 탈출하는 것, 즉 ‘탈조’는 커뮤니티 내에서 공유되는 목적이기도 하다. 커뮤니티에서는 ‘탈조’에 성공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곳이 진정한 ‘조국’으로 여겨진다.

(10) 가. 좇국과 관련된 취향 모든걸 끊었는데 / 후팔 음식은 뭘 먹어야
 할 지 모르겠노 / 아침은 조국처럼 오트밀죽먹고 점심저녁은

과일이나 샌드위치만 먹었더니 빈혈와서 재기따라갈뻔했노
나. 기승전탈조, 탈조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좇국 개노답에 환멸
느낄때마다 그에 대한 ‘도피처’로 탈조 노래하는거 /그것도 무
기력에 의한 패배주의의 일종이노.

(10가)에는 모든 한국식 생활방식을 끊었지만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적고 있다. 여기에서 ‘좇국’은 한국을 ‘조국’은 서양의 어떤 나라를 가리킨다. (10나)에는 ‘좇국’인 한국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한 공통 목표인 ‘탈조’에 대한 커뮤니티 내의 맹목적 추구 경향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좇’ 형태를 대입하여 비하나 공격의 대상을 표현하는 방식은 매우 활발하게 활용된다. ‘좇국어, 좇국인, 좇인교회, 좇반도’ 등은 모두 ‘한(韓)’ 대신 ‘좇’을 대입하여 비하와 혐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표현이다. ‘좇한민국’은 혐오의 대상은 동일하지만 ‘한(韓)’ 대신 ‘대(大)’ 부분을 ‘좇’으로 대체한 경우다. ‘시가(媳家)’를 ‘좇가’, 시집(媳-)을 ‘좇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동일한 방식을 취한 것이다. ‘시가’ 혹은 ‘시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자 ‘시(媳)’ 부분을 ‘좇’으로 바꾸어 대입함으로써 비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⑤ 앵나

남성의 특정 발화를 활용한 혐오표현인 ‘앵나’는 남성 동성애 동영상에 등장했던 ‘앵 나오다’라는 발화에서 시작된 표현이다. 어떤 인터넷 사용자가 이 동영상의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적어 게시했는데, 해당 발화 부분을 소리 나는 대로 ‘앵나오다’로 적은 것에서 유래했다. 이 표현에서 ‘앵나’ 부분만 떼어 내어 ‘매우, 무척’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당하는 표현으로 ‘좇나’가 있지만, 오히려 ‘앵나’가 더

빈번히 사용된다.¹²⁾ 남성혐오를 목적으로 한 표현으로 사용하기에는 ‘쫓나’라는 표현이 실제 언어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앵나’라는 표현은 그 기원과 관련하여 남성을 더럽고 혐오스러운 존재로 표현하는 동시에 비웃음의 대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 (11) 가. 지금생각하면 앵나 좇병신같은 짓이었다 익이야.
 나. 정보 전해주려고 글 올려주는 워년들 앵나 멋지다 이니야.
 다. 햇님 사진만 보면 자집애같이 눈에서 앵이 흐르노
 라. 보지뽕 차오르고 눈에서 앵이 나와 자집애마냥 큼큼거렸다이
 기야

(11가)와 (11나)는 ‘앵나’가 강조하는 의미에 제한이 없음을 보여준다. (11가)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11나)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할 때 ‘앵나’가 사용되었다. ‘앵나’는 ‘앵나게’, ‘앵나오게’, ‘앵빠지게’의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쫓나’의 형태 변형과 평행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앵나’에서 ‘앵’ 형태만을 분리하여 ‘눈물’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11다)와 (11라)는 ‘눈물’의 의미로 사용된 ‘앵’의 사용 양상을 보여준다.

3.3. 남성혐오표현의 특징

지금까지 사용 빈도와 사용 양상 그리고 의미 확인을 통해 발견된 남

12) 2018년 8월 14일 기준으로 검색한 결과 ‘앵나’는 14,814개의 게시글에, ‘쫓나’는 11,226개의 게시글에 등장했다. 그런데 ‘쫓나’의 검색 결과는 ‘흑쫓나’(4,661회) 형태의 검색 결과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쫓나’는 6,565개의 게시글에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혐오표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다. 남성혐오표현이 비하·조롱·공격하는 집단은 기본적으로는 ‘한국 남성 일반’이다. 고빈도 남성혐오표현에는 ‘한국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한남, 뱀저, 자매이, 한남충, 창남, 좇놈’ 등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또한 한국 남성에 대한 강한 혐오 때문에 한국 남성의 편에 선 여성들마저도 혐오의 대상이 되어 ‘홍자, 좇빨러’ 등으로 표현된다. 남성 위주의 한국 사회도 남성혐오표현이 가리키고 있는 혐오의 대상이다. 이 역시 고빈도 남성혐오표현인 ‘좇국, 자트릭스’ 등의 표현을 통해 확인된다.

둘째, 남성혐오표현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용된다. 자연적으로 혹은 우연적으로 혐오표현의 형식과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남성혐오표현의 형식과 내용은 필연적이거나 개연적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뱀저’에서 양성모음의 사용 배제와 음성모음의 사용, ‘홍자’에서 ‘명예’를 대체한 ‘홍내’의 사용 등은 이러한 의도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셋째, 남성혐오표현은 다양한 유형, 형태, 기원을 가진다. 이는 남성 혐오표현의 의도성과 관련되어 있으리라 판단된다. 남성혐오의 의도를 강하고 분명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유형, 형태, 기원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수용과 생산의 방식이 필요했을 것이다. 남성혐오표현의 다양성은 남성혐오 정서의 생산과 확산이라는 분명한 의도를 달성하기 위해 가능한 한 다양한 조어 방식을 활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넷째,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중복적으로 사용된다. 이 또한 혐오표현의 분명한 의도성과 관련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남성혐오의 의도를 충실히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혐오표

현을 중복하여 사용하는 것이 혐오의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인식되기 때문일 것이다. (12가)에서는 ‘그린일베’, ‘상폐’, ‘갈쭏’, ‘한남’ 등의 혐오표현이 연이어 사용되었으며, (12나)에서는 ‘재기하다’, ‘상폐’, ‘틀딱’, ‘갈쭏’, ‘2.1’, ‘창놈’, ‘0.69’ 등의 혐오표현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면서 혐오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12) 가. 그린일베 검색해봐야 상폐갈쭏한남들이 홍보나하고 자빠져서
제대로된 방정리 정보 못찾겠더노

나. 느그 주인님 불편하시지 않게 주인님 출퇴근길만 피해서 재기
해라 / 그래야 상폐틀딱갈쭏2.1 창놈을 0.69초라도 세상이 알
아주노

다섯째,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이 사용되는 문맥과 의미에 차이가 있다.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은 반드시 혐오의 문맥에서만 사용되지만,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혐오의 문맥이 아닌 곳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한남’이나 ‘쭏’ 등의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은 반드시 혐오의 의미를 드러낸다. 그러나 (13가)의 ‘재기하다’는 남성혐오의 문맥이라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혐오의 의미도 매우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3나)의 ‘앵나’와 (13다)의 ‘앵나오게’ 또한 남성혐오의 문맥이 아닌 곳에서 혐오의 의미도 약화된 채 강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 특징이다. 전자는 혐오 대상인 ‘남성’을 지시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의 사용은 곧 혐오의 문맥을 전제하게 된다. 하지만 후자는 남성을 대입한 혐오표현이 기존에 존재하던 의미와 기능을 대체하는 것이기에 혐오의 문맥이 아닌 곳에 사용되거나 혐오 이외의 다른 의미나 기능으로 확대되어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13) 가. 노네 터키환을 재기한거 알고 원하노

나. 너년이 목표를 앵나게 새워서 앵 나오게 노력하면 분명 그 결과
 과는 니 목표보다 6969배 높게 나올 거다 이기야.

다. 체험판이노. 공짜란 말이노. 가성비 앵나오게 공부해라이기

여섯째,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은 그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즉, 남성혐오의 의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을 일반화하여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이라는 두 유형은 남성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나 두 유형은 기존의 유형 분류와는 달리 혐오의 의도 실현에 초점을 둔 것이기에 생성 방식에 더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최근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남성혐오표현은 사회적으로는 여성혐오, 언어적으로는 여성혐오표현에 대한 반작용적 성격으로 등장한 것이다. 언어와 사회의 영향 관계가 쌍방향적이며 순환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남성혐오표현에 대한 언어적 관심과 접근은 언어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남성혐오표현에 대한 이러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마드 사이트를 중심으로 관찰되는 남성혐오표현의 목록을 조사하고, 이를 남성혐오의 의도나 의미가 실현되는 방식을 기준으로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

표현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했다. 이어서 남성혐오표현의 빈도를 조사하여 고빈도로 출현하는 남성혐오표현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남성혐오표현이 남성혐오의 맥락 속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양상과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빈도, 사용 양상, 의미 분석을 통해 확인된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며, 남성혐오표현에는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다. 남성혐오라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유형·형태·기원의 남성혐오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안에서 큰 제약 없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지시형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사용 문맥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남성혐오표현의 두 유형은 남성 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가 남성혐오표현에 대한 단편적 분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러나 남성혐오표현의 전체적 윤곽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여성 혐오표현과의 언어적 영향 관계, 남성혐오 텍스트의 논리 구조, 남성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확대·발전된 후속 연구들을 기약하면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참고 문헌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2, 한국여성연구소, 2015, 279~317쪽.
- 김태우, 「방송에서의 혐오표현에 대한 심의」, 『방송통신 심의동향』 2013-03(통권

- 7호),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2013, 3~15쪽.
- 민현식, 「국어 남녀 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 연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1997, 529~587쪽.
- 박동근, 「[X-남], [X-녀]류 통신언어의 어휘 형성과 사회적 가치 해석」, 『사회언어학』 20-1,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27~56쪽.
- 안상수 외 4인,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 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 이정복,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2007, 257~300쪽.
- 이정복, 「인터넷 통신 공간의 여성 비하적 지시 표현」, 『사회언어학』 18-2, 한국사회언어학회, 2010, 215~247쪽.
- 이정복,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2014.
- 이춘아·김이선, 『성차별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조태린,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2006.
- 조태린,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외솔회, 2011, 388~410쪽.

Abstract

The types, Use, and Meaning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Park, Dea-a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type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use aspect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and the meaning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he language expressions with the emotion and the attitude of hatred for male, that is to say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investigation of hatred expression for male centered around 'Womad' site.

You distinguish between two types of calling-hatred expression and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based on the way of Linguistic reality method of the emotion and the attitude of hatred for male. Calling male-hatred expression is used as a high frequency in the calling-hatred expression. The substituting virilia-hatred expression is used as a high frequency in the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There are some character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The targets of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is Korean male and Korean society. The hatred expression for male has clear intention of the hatred for male. There are many hatred expression for male based on the various types, forms, origins. The hatred expressions for male are used repeatably in the context without restriction. The calling-hatred expression and the substituting-hatred expression have differing contexts and meanings result from an intrinsic attribute. This two types can be used for the explanation of create mechanism in hatred expression for male.

* Mokpo National Maritime University

Keywords : misandry, misogyny, hate speech, hatred expression, hatred expression for male, hatred expression for female, Womad

박대아

전자우편 : atman@korea.ac.kr

논문 접수일 : 2018. 8. 12.

심사 완료일 : 2018. 9. 2.

게재 완료일 : 2018. 9. 12.